

치위생 전공 대학생의 성희롱 인식 수준 및 관련 요인

Awareness Levels and Influencing Factors of Sexual Harassment among Dental Hygiene Students

김선주

청주대학교 보건의료대학 치위생학과

Sun-Ju Kim(sjkim@cju.ac.kr)

요약

본 연구는 치위생 전공 대학생의 성희롱에 대한 인식정도를 파악하고 성희롱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시행하였다. 연구 대상은 4개 광역권 소재 치위생(학)과 재학생 738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2013년 10월 23일부터 11월 7일까지 수집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성희롱의 개념에 대한 인식점수는 5점 만점 중 4.33점으로 높았으나, 성희롱의 원인에 대한 인식점수는 3.42점으로 비교적 낮았다. 성희롱 유형에 대한 인식점수 중 신체적 유형의 경우 4.42점으로 높게 조사되었으나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인식점수는 2.81점으로 전체 성희롱 인식 항목 중 가장 낮았다. 성희롱 인식 수준은 성별($p=0.037$), 연령($p<0.001$), 학년($p<0.001$), 종교($p=0.004$), 성희롱 경험($p<0.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치위생(학)과 재학생들의 성희롱에 대한 전체적인 인식정도는 대체로 높은 편이었으나 성희롱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법은 소극적이었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성희롱에 관한 인식 수준을 향상시키고 성희롱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성희롱 예방 및 대처를 위한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중심어 : | 성희롱 | 인식 | 치위생 전공 대학생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awareness of dental hygiene students on sexual harrassment in an effort to provide some information on the prevention of sexual harrassment.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738 dental hygiene students at colleges located in four different large regions. As for the concept of sexual harrassment, the students got 4.33 out of a possible five in that regard, which was a high score. But they got a relatively lower score of 3.42 in awareness of the causes of sexual harrassment. They got the highest score of 4.42 in physical sexual harrassment among different types of sexual harrassment. Regarding the offender of sexual harrassment, they got 2.81 out of a possible five, which was lowest among their scores in the items of sexual harrassment awareness.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sexual harrassment awareness according to gender, age, grade and religion. The above-mentioned findings of the study illustrated that the dental hygiene students were well aware of sexual harrassment in general, but that the way they coped with it was quite passive. The development of educational programs on how to prevent sexual harrassment and cope with it is required to spread better awareness of sexual harrassment among college students and to encourage them to properly cope with it.

■ keyword : | Awareness | Dental Hygiene Student | Sexual Harrassment |

접수일자 : 2014년 11월 10일

수정일자 : 2014년 12월 12일

심사완료일 : 2014년 12월 16일

교신저자 : 김선주, e-mail : sjkim@cju.ac.kr

I. 서론

성희롱(sexual harrassment)이란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또는 일방적인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1], 최근 성희롱은 여성의 교육기회 증가 및 사회진출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쟁점화 되고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2]. 대학 내의 성희롱은 학교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들, 즉 교수와 학생, 선후배, 학과나 동아리의 친구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학 내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성희롱 가해자와 피해자의 생활맥락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1]. 또한, 대학 생활 뿐 만 아니라 향후 자신의 진로와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하기 어려워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를 학생 혼자 고민하면서 대학 재학 기간 중 심리적 장애를 지속적으로 겪게 될 가능성이 있다[3].

성희롱의 문제는 대학 재학 기간 뿐 아니라, 대학을 졸업한 뒤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 직장 내 성희롱과 같은 또 다른 형태의 성희롱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 성희롱은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성차별과 관련된 문제이며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종속된 자에게 원하지 않는 성적 언행을 할 때 일어날 수 있다[4]. 또한, 직장과 같은 조직 내에서 성희롱 피해자가 주로 여성인 까닭은 남성과 여성간의 권력 차이에서 비롯된 남성의 우월한 지위와 영향력 때문이며 남성의 거부장적 권력과 직장에서 행사하는 공적권력이라는 이중적 권력구조에 의해서 발생 한다[5][6]. 공미혜[7]는 전통적으로 여학생들의 숫자가 많거나 여성적인 학과, 즉 교육계열, 어문계열, 가정계열, 간호계열의 여대생들은 객관적 성희롱의 경험은 많으나 주관적인 인식도는 낮다고 하였다. 성희롱이 전통적인 영역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지만 여성적인 학과계열의 여대생들은 전통적인 성역할을 수용하고 있어서 성희롱에 대한 인식도가 낮을 수 있기 때문이다[8]. 치위생(학)과는 학과특성 상 재학생 대부분이 여학생으로 구성되어 있고 남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낮은 전형적인 여성적 학과이다. 치위생(학)과 졸업 후 대부분 치과위생사

로서 치과병(의)원과 같은 비교적 소규모 의료기관에 취업을 하게 된다. 규모가 작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성희롱 문제가 발생되면 가해자의 징계나 처벌 등 문제 해결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피해자가 회사를 나감으로 해결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6]. 최근 보고에서도 보건의료 노동자의 상당수가 환자 및 보호자 등으로부터 성희롱을 경험하였고, 간호업무를 담당하는 직종이 다른 직종의 사람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성희롱 경험이 높다고 하였다[9].

성희롱이 어디에서나 발생될 수 있고 대학과 직장에서도 빈번하게 발생됨을 볼 때 치위생(학) 전공 대학생의 성희롱에 대한 인식과 관련 요인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 암암리에 묵인되어 왔던 성희롱의 문제들이 표면화되기 시작하면서 최근 몇몇 대학들이 성폭력의 개념 틀 하에서 성희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사회진출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의 경우 성희롱 문제발생에 대한 사전 예방과 성희롱에 관한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성희롱에 대한 명확한 인식 파악과 이와 관련된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동안 일반 직장인, 간호사, 일부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성희롱 관련 연구는 있었으나[1-3][5][7][10], 치위생(학)과 재학생이나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성희롱 인식 및 관련 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치과위생사는 스캘링(scaling)과 같은 장시간 개별적인 환자와의 접촉이 필요한 치위생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환자에 의해서도 성희롱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직장 내에서 치과위생사와 치과 의사의 관계는 경영자와 고용인 형태의 전통적인 병원지위체계 내에 있기 때문에 성희롱에 노출될 잠재적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미래의 치과위생사인 치위생 전공 대학생의 성희롱에 대한 인식 수준 및 관련 요인을 파악하여, 성희롱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치위생 전공 대학생의 성희롱 인식 및 관련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연구로써, 연구의 모집단은 전국에 소재하고 있는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치위생(학)과 재학생이다. 전국을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강원·중부권(강원, 충남, 대전, 충북), 영남권(경북, 대구, 울산, 경남, 부산), 호남권(전남, 광주, 전북, 제주) 총 4개 광역권으로 편의 분류하고 각 광역별로 재학생 수를 파악하여 각 지역 비율에 따라 할당표집 추출을 하였다.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2013년 3월 기준 치위생(학)과 입학정원의 비율은 수도권이 19.2%, 강원·중부권은 26.6%, 영남권은 31.6%, 호남권은 22.6%였다. 연구대상자의 표본추출은 할당표집법을 적용하였으며, 대상자 수는 G*power 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에 필요에 필요한 유의수준 0.05, small effect size 0.02, 검정력 0.9로 설정하였을 때 필요한 최소한의 표본은 738명이었으며, 지역별로 비례 할당하였을 때 수도권 146명(19.2%), 강원·중부권 196명(26.6%), 영남권 233명(31.6%), 호남권 167명(22.6%)이었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2013년 10월 23일부터 11월 7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기기입 방식으로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작성된 후 그 자리에서 즉시 회수하였다. 연구대상자의 권리를 고려하여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수집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설문에 포함된 내용은 연구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를 동의한 학생만 참여할 수 있고 설문의 중도 거부가 가능하며 대상자의 권리나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연구자의 연락처를 제공하는 참여 동의서를 받았다.

3.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설문지의 구성은 일반적 특성

12문항, 성희롱 인식 36문항과 성희롱 대처에 관한 인식 4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성희롱 인식은 이계순[2]의 성희롱 인식조사용 설문을 이영란 등[1]이 수정·보완하여 내용 타당도를 검증 받은 도구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본 설문지는 성희롱의 개념(6문항), 성희롱의 유형(12문항), 성희롱 원인(6문항), 성희롱의 가해자(7문항), 성희롱 예방교육(5문항)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항상 그렇다'의 5점까지 5점 Likert식 척도로써 역산문항은 역산처리하여 계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희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또한, 성희롱 대처에 대한 인식은 성희롱을 당한 사람의 대처 행동, 성희롱의 대처에 대한 상대방의 예상 행동,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이유, 성희롱을 당할 사람에게 예상되는 행동에 관한 4개 문항의 개방된 응답을 요구하였다. 도구의 신뢰도는 이영란 등[1]의 연구에서 Cronbach' alpha 값은 0.9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0.87이었다.

4.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ver. 12.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성희롱 대처는 빈도와 백분율로 구하였고, 성희롱 인식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조사대상자 특성에 따른 성희롱 인식 차이는 independent samples t-test와 one-way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정으로 Scheffe' test를 시행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값을 구하여 확인하였으며, 통계학적 유의검정 수준은 0.05를 기준으로 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여자가 732명 99.2%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연령은 20-21세가 306명 41.5%로 가장 많았고 19세 이하 206명 27.9%, 22-23세 185명 25.1%, 24세 이상 41명 5.5% 순이었다. 학제는 3

년제 501명 67.9%, 4년제 237명 32.1%였고, 권역별로는 수도권 142명 19.2%, 강원·충부권 196명 26.6%, 영남권 233명 31.6%, 호남권 167명 22.6%를 차지하였다. 학년별로는 1학년 184명 24.9%, 2학년 212명 28.7%, 3학년 174명 23.6%, 4학년 168명 22.8%였다. 이성교제 경험은 있다 573명 77.6%, 없다 165명 22.4%였으며, 성희롱 경험은 있다 133명 18.0%, 없다 605명 82.0%로 조사되었다[표 1].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738

구분	특성	빈도(%)
성별	남	6(0.8)
	여	732(99.2)
연령	≤19	206(27.9)
	20-21	306(41.5)
	22-23	185(25.1)
	24≤	41(5.5)
학제	3년제	501(67.9)
	4년제	237(32.1)
학교 위치	수도권	142(19.2)
	강원충부권	196(26.6)
	영남권	233(31.6)
	호남권	167(22.6)
학년	1학년	184(24.9)
	2학년	212(28.7)
	3학년	174(23.6)
	4학년	168(22.8)
이성교제 경험	있다	573(77.6)
	없다	165(22.4)
성희롱 경험	있다	133(18.0)
	없다	605(82.0)

2. 성희롱의 개념과 원인에 대한 인식

연구대상자의 성희롱의 개념에 대한 인식점수는 5점 만점 중 4.33±0.79점으로 높은 인식점수를 보였다. 역산 문항인 ‘성희롱은 인간관계를 원만히 하는 요소이다’ 항목이 4.77±0.61로 가장 인식점수가 높았고, ‘성희롱은 친밀감의 표현이다’ 4.70±1.54점, ‘성희롱은 사소하고 개인적인 문제이다’ 문항도 4.45±0.84로 항목 전체적으로 높은 인식점수를 보였다. 성희롱의 원인에 대한 인식점수는 5점 만점 중 3.42±0.86점으로 성희롱 개념에 비해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성의 상품화는 성희롱을 부추긴다’ 항목에서만 4.02±0.82점으로 4점대의 인식점수를 보였다[표 2].

표 2. 성희롱의 개념과 원인에 대한 인식 N=738

구분	항목	M±SD [†]
성희롱의 개념	성희롱은 친밀감의 표현이다.	4.70±1.54
	성희롱은 인간관계를 원만히 하는 요소이다.	4.77±0.61
	성희롱은 사소하고 개인적인 문제이다.	4.45±0.84
	성희롱은 성적관심의 표현이다.	3.93±1.23
	성희롱은 법적으로 해결할 만큼 심각한 문제이다.	4.45±0.83
	성희롱은 직장 내에서 항상 일어난다.	3.70±0.79
	합계	4.33±0.79
성희롱의 원인	여성을 직장동료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3.26±1.00
	성의 상품화는 성희롱을 부추긴다.	4.02±0.82
	여성의 낮은 지위는 성희롱의 원인이다.	3.14±1.11
	여성의 아한 옷차림은 성희롱의 원인이다.	3.13±1.08
	성희롱 원인은 남녀차별에 근거한 성 역할의 고정관념이다.	3.68±0.95
	남성의 성적 충동은 성희롱의 원인이다.	3.25±0.98
	합계	3.42±0.86

[†]Mean±Standard deviation

3. 성희롱 유형에 대한 인식

성희롱 유형 전체에 대한 인식점수는 5점 만점 중 3.93±0.85점으로 성희롱 개념과 원인에 대한 인식 수준보다 낮은 점수를 보였다. 성희롱 유형별 점수에서 시각적 유형 4.01±0.70점, 언어적 유형 3.57±0.75점, 신체적 유형 4.42±0.28점으로 조사되어, 신체적 유형에 대한 성희롱 인식점수는 높은 반면 언어적 유형에 대한 성희롱 인식점수는 낮았다[표 3].

표 3. 성희롱의 유형에 대한 인식 N=738

성희롱 유형	Variables	M±SD [†]
시각적 유형	성희롱은 외설적이고 성적인 낙서도 포함된다.	4.18±0.68
	누드나 포르노 그림의 부착은 성희롱이다.	3.96±0.84
	성관계를 연상시키는 행동도 성희롱에 포함된다.	4.41±0.64
	뚫어지게 보는 것은 성희롱이다.	3.16±0.91
	인터넷 음란사이트를 보여주는 것도 성희롱이다.	3.86±0.89
	성희롱은 특정신체부위를 만지고 보여주는 것이다.	4.49±0.79
	합계	4.01±0.70
언어적 유형	"sexy하다" 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쁘다.	2.88±0.85
	음담패설은 성희롱에 속한다.	3.73±0.82
	생리휴가 사용 시 조롱하거나 비꼬는 것은 성희롱이다.	4.31±0.69
	반복되는 거절에 계속되는 데이트 요청은 성희롱이다.	3.36±0.91
	합계	3.57±0.75
신체적 유형	회식 시 술시중, 부르스 추기의 강요는 성희롱이다.	4.40±0.74
	상대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도 성희롱이다.	4.44±0.79
	합계	4.42±0.28
	전체 합계	3.93±0.85

[†]Mean±Standard deviation

4. 성희롱 가해자와 성희롱 예방에 대한 인식

성희롱 인식 중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인식점수는 5점 만점 중 2.81±0.80점으로 전체 성희롱 인식 항목 가운데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항목별로는 ‘성희롱은 학력과 관계가 있다’ 2.22±0.97점, ‘성희롱은 나이와 관계가 있다’ 2.41±0.98점, ‘성희롱의 가해자는 결혼 상태와 관계가 있다’ 2.44±0.92점 순으로 조사되었다.

성희롱 예방에 대한 인식은 전체 점수가 3.57±1.15점이었으며, 항목별로는 ‘처벌 강화는 성희롱 방지에 효과적이다’ 항목이 4.31±0.95점으로 가장 높았고 ‘성희롱 관련법은 성희롱 방지에 효과적이다’ 항목이 2.67±0.83점으로 가장 낮았다[표 4].

표 4. 성희롱 가해자와 성희롱 예방에 대한 인식 N=738

구분	항목	M±SD [†]
성희롱 가해자	성희롱은 주로 상사에게 당한다.	3.45±0.91
	직장 동료가 성희롱의 주범이다.	3.25±0.83
	고객이 성희롱의 주범이다.	3.00±0.81
	성희롱의 가해자는 결혼 상태와 관계가 있다.	2.44±0.92
	성희롱은 나이와 관계가 있다.	2.41±0.98
	성희롱은 학력과 관계가 있다.	2.22±0.97
	성희롱을 하는 사람은 몇몇 특정인이다.	2.91±1.07
성희롱 예방	합계	2.81±0.80
	체계적인 성교육은 성희롱 예방에 도움이 된다.	3.64±0.95
	처벌 강화는 성희롱 방지에 효과적이다.	4.31±0.95
	성희롱에 대한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3.28±1.07
	성희롱 관련법은 성희롱 방지에 효과적이다.	2.67±0.83
합계	3.57±1.15	

[†] Mean±Standard deviation

5. 성희롱 대처에 대한 인식

성희롱 대처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에 복수응답을 하도록 한 결과, 성희롱 피해자가 주로 어떤 행동을 할 것이라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뭐라고 꼬집어서 항의하기 힘들어서 알고도 그냥 참는다’로 응답한 경우가 566명 76.7%로 가장 많았고,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라는 응답은 314명 42.5%로 조사되었다.

성희롱의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적극적인 대응을 할 때 가해자가 어떠한 행동을 하리라고 예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행동을 중지할 것이다’라는 응답이 313명 42.4%로 가장 많았고 ‘보복할 것이다’라는 응답도 297명 40.2%로 조사되었다.

성희롱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401명 54.3%, ‘불이익이나 보복을 당할 것 같기 때문에’ 386명 52.3%, ‘인간관계가 걸끄러워 질까봐’ 384명 52.0%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성희롱 이후 겪을 수 있는 증상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수치심’, 717명 97.2%, ‘자존심 손상’ 546명 74.0%, ‘분노’ 516명 69.9%, ‘당혹스러움’ 464명 62.9%, ‘두려움’ 438명 59.3%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표 5].

표 5. 성희롱 대처에 대한 인식

N=738

항목	N(%) [†]
1. 성희롱을 당한 사람들이 주로 어떻게 행동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희롱인지 아닌지를 잘 몰라 그냥 넘어간다. 자신의 옷이나 몸매에 대한 칭찬으로 받아들인다. 뭐라고 꼬집어서 항의하기 힘들어서 참는다. 대법하게 보이기 위해 무시하거나 한술 더 떠서 장단을 맞춘다.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 기타	277(37.5) 24(3.3) 566(76.7) 63(8.5) 314(42.5) 11(1.5)
2. 사람들이 성희롱 당시 적극적인 대응을 하였을 경우 그 상대방이 어떠한 행동을 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시하고 계속한다. 더욱 심하게 성희롱을 한다. 행동을 중지한다. 행동을 중지하고 사과한다. 보복한다. 기타	240(32.5) 177(24.0) 313(42.4) 123(16.7) 297(40.2) 198(26.8)
3. 성희롱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대응을 해봐야 소용없다는 생각 때문이다. 인간관계가 걸끄러워 질까봐서이다.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기 때문이다.	294(39.8) 384(52.0) 401(54.3)

창피해서이다.	295(40.0)
기분이 나쁘지 않아서이다.	11(1.5)
직장에서 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이다.	60(8.1)
보복 당할 것 같기 때문이다.	386(52.3)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284(38.5)
4. 성희롱이 성희롱을 당한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십니까?	
수치심	717(97.2)
자존심 손상	546(74.0)
분노	516(69.9)
당혹스러움	464(62.9)
두려움	438(59.3)
불안, 걱정	389(52.7)
퇴사	329(44.6)
우울증	293(39.7)
불면증	212(28.7)
두통	119(16.1)
위장병, 메스꺼움, 식욕감퇴	149(20.2)

†Multiple select

6.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희롱 인식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희롱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희롱 인식은 성별(p=0.037), 연령(p<0.001), 학년(p<0.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성희롱에 대한 인식점수가 높았고, 연령이 많고 학년이 높을수록 인식점수가 높았다. 그러나 학제, 학교위치, 이성교제 경험, 성희롱 경험

에 따른 성희롱 인식점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6].

7. 성희롱 관련 교육경험 실태

성희롱 교육경험 실태를 조사한 결과 88.8%가 성희롱 교육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교육 시기는 대학교 71.0%, 고등학교 69.0%, 초등학교 35.0%, 대학교

표 6.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희롱 인식

N=738

구분		N(%)	M±SD [†]	t or F	p-value
성별	남	6(0.8)	2.58±0.19	3.377	0.037*
	여	732(99.2)	3.31±0.29		
연령	≤19	206(27.9)	3.25±0.31 ^a	13.338	<0.001***
	20-21	306(41.5)	3.28±0.30 ^a		
	22-23	185(25.1)	3.40±0.26 ^a		
	24≤	41(5.5)	3.61±0.27 ^b		
학제	3년제	501(67.9)	3.28±0.31	2.669	0.103
	4년제	237(32.1)	3.36±0.27		
학년	1학년	184(24.9)	3.26±0.32 ^a	8.276	<0.001***
	2학년	212(28.7)	3.27±0.29 ^a		
	3학년	174(23.6)	3.30±0.33 ^a		
	4학년	168(22.8)	3.40±0.24 ^b		
학교 위치	수도권	142(19.2)	3.32±0.28	2.932	0.101
	강원중부권	196(26.6)	3.30±0.29		
	영남권	233(31.6)	3.28±0.32		
이성교제 경험	있다	573(77.6)	3.31±.30	0.876	0.381
	없다	165(22.4)	3.29±.30		
	성희롱 경험	있다	133(18.0)		
없다	605(82.0)	3.31±.30			

†M±SD: mean ± standard deviation

*p<.05, **p<.01, ***p<.001, statistically significant by t-test and one way ANOVA

^{a-b}:different letters represent significant different by Scheffe method comparison at 0.05 significance level

7.0%로 조사되었다. 교육 만족도는 그저 그렇다는 응답이 69.7%,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20.8%였으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도 9.5%를 차지하였다[표 7].

표 7. 성희롱 관련 교육경험 실태 N=738

구분		N(%)
교육 경험	있다	655(88.8)
	없다	83(11.2)
교육 시기*	초등학교	258(35.0)
	중학교	524(71.0)
	고등학교	509(69.0)
	대학교	52(7.0)
	기타	6(0.8)
교육 효과	도움이 되었다	137(20.8)
	그저 그렇다	460(69.7)
	도움이 되지 않았다	63(9.5)

*Multiple select

8. 성희롱 교육경험 유무에 따른 성희롱 인식

성희롱 관련 교육경험 유무에 따른 성희롱 인식정도를 조사한 결과, 성희롱 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 성희롱 유형(p=0.037) 항목과 성희롱 예방교육(p<0.001) 항목의 인식점수가 성희롱 교육경험이 없는 경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그러나 성희롱의 개념, 성희롱 원인과 성희롱 가해자 항목에서는 성희롱 관련 교육 경험 유무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8].

표 8. 성희롱 교육 경험 유무에 따른 성희롱 인식 N=738

Variables	교육경험(M±SD) [†]		t	p-value
	Yes	No		
성희롱의 개념	2.39±.40	2.37±.50	0.362	0.717
성희롱의 유형	3.94±.44	3.84±.43	2.092	0.037*
성희롱의 원인	3.42±.60	3.37±.61	0.765	0.444
성희롱의 가해자	2.84±.65	2.81±.60	-0.487	0.626
성희롱의 예방교육	3.52±.58	3.27±.48	3.734	<0.001***
합계	3.32±.30	3.24±.31	2.198	0.028*

[†]M±SD: mean standard deviation
p<.05, *p<.01, ***p<.001

9. 성희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성희롱 인식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성희롱 인식정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일반적 특성인 연령, 학년, 이성교제 경험, 성희롱 경험, 성희롱관련 교육경험을 독립변수로 하여 단계선택법을 이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분석결과

성희롱 인식정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연령(p=0.001), 학년(p<0.001), 성희롱 경험(p<0.001), 성희롱 교육경험(p<0.035)이 성희롱 인식정도에 영향을 주는 유의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났고, 총 설명력은 39.2%였다(R²=.392, p<.001)[표 9].

Table 9. 성희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N=738

구분	B	SE	Beta	p-value
(Constant)	2.475	0.311		<0.001***
연령(year)	0.046	0.013	0.217	0.001**
학제(3/4)	-0.050	0.035	-0.078	0.151
학년(1/2)	0.105	0.019	0.117	<.001***
학년(1/3)	0.374	0.097	0.211	<.001***
학년(1/4)	0.409	0.102	0.278	<.001***
이성교제 경험(있다/없다)	-0.015	0.017	-0.115	0.364
성희롱 경험(있다/없다)	0.156	0.041	0.149	<0.001***
성희롱 교육경험(있다/없다)	-0.145	.132	-0.042	0.035*
R ² = 0.392				

SE: standard error
*p<0.05, **p<0.01, ***p<0.001, statistically significant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V. 논의

성희롱에 대한 문제점들이 사회적으로 논의되기 시작 된지 20여 년이 되었고 다양한 제도들의 마련과 더불어 양성평등이식이 향상되고 있음에도, 교육기관 혹은 직장 내의 성희롱 문제로 상담하는 사례는 증가하고 있다[4]. 이에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성희롱 인식 및 관련 요인에 대해 조사함으로써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시행하였다.

성희롱 인식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성희롱에 대한 전체 영역 인식정도는 5점 만점 중 3.63점이었고, 그중 성희롱 개념에 관한 영역이 4.33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영란 등[1]의 연구에서도 성희롱 인식정도는 평균 3.70점으로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인식 수준을 보였으며, 성희롱의 개념에 대한 영역이 4.2점으로 가장 높아 본 연구 결과와도 유사하였다. 다만, 전체 성희롱 인식점수는 본 연구에서 좀 더 높았는데 이는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99.2%가 여자 대학생인 반면, 이영란 등[1]의 연구에서는 남학생 비율이 40%를 차지하므로 성별에 따른 성희롱 개념의 남·여 인식차이로 인한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병원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인식을 조사한 고진희[9]의 연구에서도 성희롱에 대한 인식점수가 5점 만점 중 평균 3.98점이었고, 그 중 성희롱 개념에 대한 인식이 4.31점으로 가장 높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다만, 전체 성희롱 인식점수는 본 연구결과 보다 약간 높았으나 조사대상자의 평균 연령이 높고 사회생활을 이미 경험한 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 비해 높은 인식점수를 보였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는 연령이 어릴수록 객관적 성희롱의 경험이나 성희롱의 인식이 낮다고 보고한 공미혜[7]의 연구와도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다. 대학생 시기는 다양한 사회 활동경험이 부족하므로 성희롱에 대한 인식이 일반 성인에 비해 낮을 수 있으며, 청소년기 또한 기존의 입시 위주의 교육제도 아래 전통적 사고와 사회적 인식 속에서 영향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격적인 성인기를 준비하는 시기이며 사회 진출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올바른 성의식 및 성태도를 갖도록 교육하고, 그와 더불어 성희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성희롱 대처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에 복수응답을 하도록 한 결과, 성희롱 피해자가 주로 어떤 행동을 할 것이라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뭐라고 꼬집어서 항의하기 힘들어서 알고도 그냥 참는다'로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아 아직까지도 성희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인식을 갖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학생들의 성희롱 대처방안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도 '성희롱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 했는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대부분이 농담으로 상황을 넘기거나 모르는 척하고 상대방을 회피하는 등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고[11], 문희경[12]의 연구에서도 성희롱을 알고도 모르는 척하거나 거부 의사를 밝히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성희롱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를 묻는 본 연구의 세 번째

문항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성희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응답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불이익이나 보복을 당할 것 같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꺾그러워 질까봐'라는 순으로 나타나 소극적 유형의 대처 응답이 주를 이루었다. 이는 기존의 선행 연구와도 일치하는 부분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영란 등[1]의 연구에서도 성희롱에 적극적인 반응을 하지 않는 이유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다고 보고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문희경[12]의 연구결과에서도 가해자의 보복이 두렵거나, 대인관계 등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고, 김정인 등[13]의 연구에서도 성희롱 피해자들이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고 피해 사실을 숨기는 이유에 대해 수치심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하였으며, 불이익 혹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 문제제기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등의 순으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성희롱을 경험했을 때 학생들의 대응방식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성희롱의 문제는 인권침해로써 사회적인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노출되었을 때 대체로 개인적인 문제로 처리하려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문화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14]. 성폭력 예방교육과 의사표현 훈련이 부족하고 성희롱을 사소한 것으로 간주해 온 문화 속에서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기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상사에게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엄격한 위계질서를 위협하는 것으로 여기는 기존문화가 버티고 있다[13]. 선행 연구에서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성희롱 문제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으며, 상담과 같은 전문적 활동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 이러한 자원에 접근하지 못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3]. 이러한 문제의 개선을 위해 성희롱 피해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성희롱 대처방식에 관한 지속적인 교육과 학교 내 처리방식의 개선 및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되며 그와 더불어 후속조치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분위기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성희롱의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적극적인 대응을 할

때 가해자가 어떠한 행동을 하리라고 예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행동을 중지할 것이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보복할 것이다', '계속 할 것이다' 도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성희롱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했을 때 가해자가 성희롱 행동을 중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그와 더불어 성희롱 가해자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과 적극적으로 대처하여도 소용없을 것이라는 인식도 함께 내재해 있음을 보여 준다.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일반적으로 성희롱 피해를 경험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는 생각과는 다르게 실제 성희롱 피해 상황에서 피해자가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있으며[3], 이러한 문제를 일으킨 원인이 피해자 스스로의 잘못일 것이라는 죄책감을 갖고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 수동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12][15]. 김정인 등[13]은 남학생들의 경우 여학생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성희롱을 예방하고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여학생들은 피해자의 의지와는 무관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즉, 자신의 성희롱 대처행동에 따라 성희롱을 예방하고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자신이 성희롱에 적극적으로 대처해도 소용없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성희롱 피해 사실에 대해 노출을 하게 될 경우 오히려 주변의 좋지 않은 시선과 가해자로부터 오는 보복 등의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신고를 꺼리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인식은 성희롱 신고를 꺼리게 되고 결과적으로 성희롱 발생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에서 성희롱을 경험할 경우, 강한 불쾌감과 항의 표시 등 강경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하겠다고 응답하였으나, 직접 성희롱을 당했을 때에는 농담으로 웃어넘기거나 모르는 척하거나 또는 상대를 피하거나 너무 당황해서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2][16]. 성희롱에 대한 대처 유형에 있어서 주변의 지지적인 환경 하에서는 자신들의 문제를 다른 사람들과 상의하거나 상담을 청할 가능성이 높고, 교육, 훈련 및 홍보를 통한 능동적인 태도변화가 성희롱 예방에 효과적이다[13]. 그러므로 성희롱이 발생될 경우 효과적으로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대처행동 및 예방에 관

한 교육을 시행하고 학교 내 성희롱 상담실의 효율적 운영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학생 대상 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성희롱 교육과 관련 된 조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88.8%가 성희롱 교육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응답자 대부분 중·고등학교에서 성희롱 관련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희롱 교육 만족도에서 교육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전체 성희롱 교육 경험자 중 20.8%에 불과하였다. 또한, 성희롱 교육경험과 성희롱 인식정도와 관련성을 확인한 결과에서도 성희롱 유형과 성희롱의 예방교육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유의하였고, 나머지 항목에서는 성희롱 교육유무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희롱 교육이 좀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운영 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현재 각 대학에서는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해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관련 예방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나 대부분 형식적인 일회성의 대규모 강연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교육 실효성에 대해서는 명확한 평가를 시행하기 어렵다. 선행 연구에서도 일시적인 특강의 형태로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하는 것은 성희롱, 성폭력 발생 감소에 도움이 되지 못하며, 일회성의 교육이 아닌 교과과정 중 필수 과목으로 성교육프로그램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교육부나 대학 당국의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한 바 있다[7][16]. 아울러, 평등하고 성숙한 인간관계의 형성과 왜곡된 성역할의 고정관념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 및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노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성희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성별, 연령, 학년, 종교, 성희롱 경험이 성희롱 인식정도에 영향을 주는 유의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 99.2%가 여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성별에 따른 차이에 의미를 두기 어려우나, 대부분의 기존 선행연구에서 여학생의 성희롱 인식이 남학생보다 높다고 보고한 바 있다[1][3][11]. 박금주 등[17]도 남학생이 전반적으로 남성 중심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여학생보다 성희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고, 성희롱에 대한 태도에서도 성희롱 피해 유발이나 책임을 피해자인 여성에게 돌리는 경향이 더 많다

고 보고하였다. 성희롱에 대한 시각적 차이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것은 향후 성희롱을 더욱 유발시킬 수 있고, 또 다른 사회 문제로 발전할 수 가능성이 있으므로 성문제 전반에 관한 성별 인식 차이를 줄여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성희롱 현상에서 남성과 여성의 인식차이에 의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해 상대방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총체적인 토론과 성희롱 예방교육이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연령 및 학년에 따라서도 성희롱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선행 연구에서도 연령이 어릴수록 경험과 인식의 기회가 적을 뿐만 아니라 차별화 된 힘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성희롱 인식정도가 낮다고 하였다[18]. 이는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연령과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교 생활이나 사회 경험을 통해 성희롱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에 노출되는 빈도가 증가하게 되고, 그에 따라 성희롱 인식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성희롱에 대한 인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향 요인을 고려하여 성희롱 관련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계획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 이외의 성희롱 인식에 대한 다양한 변수들과의 관련성을 조사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개인의 가치관 및 직장 내 가부장적 특성과 인구·사회학적 상황적 요인은 성희롱에 대한 인식과 경험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김정인 등[13]은 성역할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고 여성성을 강조하는 가부장적 의식과 가치관에 익숙한 여성일수록 성희롱을 용인하고 수용하는 경향이 크다고 보고하였으며, 김금란[19]과 홍용기와 조국행[20]은 성희롱의 개념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고 성 개방 성향이 낮은 여성일수록 성희롱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한다고 하였다. 성희롱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변인과 그에 따른 관련성을 파악하고 대상자별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성희롱에 관한 경각심 조성 및 성희롱 예방과 관련 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성희롱 인식 실태와 관련 변인에 대한 연구 결과를 고려하여야 하며, 1회성의 단편적인 강의식 성

희롱 교육을 벗어나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성희롱 인식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성희롱 인식 관련 연구로써 갈수록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는 성희롱 예방 및 교육에 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성희롱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성희롱에 대한 인식 뿐만 아니라 성희롱에 대한 태도 및 행동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 인식 수준 및 치과의료기관 내에서의 성희롱 실태 등의 후속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치위생 전공 대학생의 성희롱에 대한 인식 정도를 파악하고 성희롱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시행하였다. 연구 대상은 4개 광역권(수도권, 강원·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소재 치위생(학)과 재학생 738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2013년 10월 23일부터 11월 7일까지 수집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자의 성희롱의 개념에 대한 인식점수는 5점 만점 중 4.33점으로 높았으나, 성희롱의 원인에 대한 인식점수는 3.42점으로 비교적 낮았다.
2. 성희롱 유형에 대한 인식점수는 5점 만점 중 3.93점으로 성희롱 개념보다는 낮은 점수를 보였으나 신체적 유형의 경우 4.42점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3.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인식점수는 5점 만점에 2.81점으로 전체 성희롱 인식 항목 중 가장 낮았으며, 성희롱 예방에 대한 인식점수는 3.57점이었다.
4. 성희롱 인식은 연령($p < 0.001$), 학년($p < 0.001$), 성희롱 경험($p < 0.001$), 성희롱 관련 교육경험($p = 0.035$)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치위생(학)과 재학생들의 성희롱에 대한 전체적인 인식정도는 대체로 높은 편이었으나 성

희롱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법은 소극적이었다. 학생들의 성희롱에 관한 인식 수준을 향상시키고 성희롱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성희롱 예방 및 대처를 위한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1] 이영란, 김경미, 최소은, "대학생의 성희롱 및 성평등 인식 수준 및 영향 요인", 지역사회간호학회지, 제24권, 제1호, pp.40-50, 2013.

[2] 이재순, *관련 변인에 따른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인식*,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3] 하혜숙, "대학생의 성희롱 대처방안 차이 연구", 한국상담및심리치료학회지, 제19권, 제3호, pp.785-800, 2007.

[4] 윤혜정, *직장내 성희롱의 구제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5] 이주영, *대학병원 간호사에 대한 성희롱 실태 조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6] 이성은, *직장내 성희롱의 순응과 저항에 관한 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7] 공미혜, "여대생의 성희롱 경험과 의식의 차", 한국여성학, 제13권, 제1호, pp.29-50, 1997.

[8] J. Ryan and S. Kenig, "Risk and ideology in sexual harassment," *Sociological Inquiry*, Vol.61, No.2, pp.231-241, 1991.

[9] 고진희, *병원 간호사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인식과 경험실태 및 관련 요인*,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10] 전찬희, "요양보호사의 노동인권 관련 고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5호, pp.234-242, 2013.

[11] 김양희, "성희롱: 경험과 인식, 그리고 정책방안", 한국사회문제심리학회지, 제2권, 제1호, pp.17-32, 1995.

[12] 문희경, *대학생의 성희롱 예방 대처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상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13] 김정인, 최상진, 박정열, "성희롱 행위에 대한 대처인식 및 가용 자원의 기능", 한국심리학회지, 제7권, 제2호, pp.53-74, 2001.

[14] 박옥임, 김정숙, 강희순, "성별에 따른 대학 내 성희롱에 관한 실태 및 인지도 분석",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제15권, 제3호, pp.137-148, 2004.

[15] 정향미, "일부지역 대학생의 성희롱 인식과 관련된 요인", 한국모자보건학회지, 제7권, 제2호, pp.277-287, 2003.

[16] 위진희, *대학생의 심리사회적 성숙도, 성태도, 성희롱-성폭력 인식과의 관계*, 수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17] 박금주, 김두화, 김성현, "대학생의 성희롱, 성폭력 실태에 관한 연구", 학생생활연구, 제28권, 제1호, pp.307-342, 2005.

[18] A. Barak, W. Fisher, and S. Houston, "Individual difference correlates of the experience of sexual harassment among female university students," *J Appl Soc Psychol*, Vol.22, No.1, pp.17-37, 1992.

[19] 김금란, *직장 내 성희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20] 홍용기, 조국행,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비서학회지, 제9권, 제2호, pp.219-234, 2000.

저 자 소 개

김 선 주(Sun-Ju Kim)

정회원



- 2003년 8월 : 중앙대학교 대학원 (보건학 석사)
- 2010년 2월 : 원광대학교 대학원 (보건학 박사)
- 2010년 3월 ~ 현재 : 청주대학교 치위생학과 교수

<관심분야> : 지역사회구강보건, 구강보건교육, 예방치위생